

‘중산층 남성 되기’의 문법과 윤리의 문제

: 박완서의 『오만과 몽상』을 중심으로

오자은*

차례

1. 들어가며
2. 가짜 가족로망스와 자수성가 신화 쓰기의 경쟁
3. 교환가치의 세계와 ‘아직 짓지 않은 죄’의 죄의식
4. 증여하는 여성과 성장하지 않는 남성 성장 서사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친일’로 상징되는 부도덕함, 부끄러움과 같은 한국사의 ‘콤플렉스 극복’과 산업 자본주의의 전면화 속에서의 ‘생존’이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함께 다루면서, 『오만과 몽상』을 1970-80년대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 남성’ 되기의 실패와 그에 대한 윤리적 문제 제기로서 읽어보았다. 여기에는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이라는 계층이 단순히 전체 사회 집단의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60년대부터 일정 부분 국가주도 하에 만들어진 한국 사회의 특수한 구성물이라는 인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중산층 남성의 자아이상 역시 현실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중산층 남성 집단에서 귀납적으로 형성되었다기보다는 국가 주도의 중산층 담론 속에서 관념적·이데올로기적으로 먼저 만들어졌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중산층 남성의 자아이상이 관념적으로 먼저 있고, 그 뒤에 그것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중산층 남성이 되고자 하는 실재가 온다는 것이다. 『오만과 몽상』은

* KAIST 인문사회과학부 대우교수.

소설적 구성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본래 가난하지 않았으면서 가난의 상태를 스스로 선택하는 현의 전도된 가족로망스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남성의 중산층 되기 시도가 일종의 인위적 실험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의 실험- 현과 남상이의 자수성가 신화 쓰기의 과정과 실패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중산층 남성다운 자력에 의한 정당한 성공을 꿈꾸지만 자수성가의 신화와 그 속에 암시되어 있는 정당성이란 급속도로 진행되는 자본주의화 과정,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가의 영향력 속에서 유포된 정당화의 논리일 뿐이고, 무에서 출발하여 중산층으로서의 경제적 여유를 갖추는 것은 실은 타자의 희생과 몰락을 발판으로 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들은 과거에 대한 부채의식에서 벗어나 깨끗한 새출발을 꿈꾸지만, 그들이 떠난 길은 새로운 죄의식(부채의식)의 구렁 속으로 빠지는 길이었음을 알게된다. 여기서 ‘자수성가’를 가능하게 해줄 자본주의적 교환의 세계는 죄지음을 대가로 요구하는 악마적 세계로 그려진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적 교환 시스템 자체의 죄악성이 두 주인공이 중산층 남성으로 성공하기 위해 이 시스템에 발을 담그는 순간부터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독특한 예기 죄의식의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현과 남상이의 실패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두 남성은 소설의 끝에서 본래 목표로 했던 중산층 남성으로의 성장에 실패한 채 원래 자리에 돌아와 있다. 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되돌려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 물음과 대결하는 그들의 내면적 태도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 변화를 매개하는 것은, 교환 시스템 속에서 착취당하는 전형적인 여성 희생양처럼 보이지만 그 시스템에 포섭되지 않기에 결코 희생자가 될 수 없는 존재인 영자다. 이 글에서는 두 남성 주인공의 내적 변화가 절대적으로 증명하는 여성 영자와 관계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오만과 몽상』을 단순히

당대 자본주의 현실의 부조리와 중산층의 허위를 고발하는 것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주체적 윤리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소설로 읽어보았다.

핵심어 : 박완서, 오만과 몽상, 중산층 남성성, 중산층, 자수성가, 증여, 가족 로맨스

1. 들어가며

1979년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발간되면서 친일파 문제에 대한 학계와 일반의 관심이 고조되던 시기, 박완서는 『한국문학』에 친일을 주요 소재로 한 소설 『오만과 몽상』을 연재하기 시작한다. 시의적절한 사회적 이슈를 빠르게 소설 속에 포착하는 작가적 자세는 여기서도 발휘되어 “동학군은 애국투사를 낳고, 애국투사는 수위를 낳고, 수위는 도배장이를 낳고, 도배장이는 남상이를 낳고... 매국노는 친일파를 낳고, 친일파는 탐관오리를 낳고, 탐관오리는 악덕 기업인을 낳고, 악덕 기업인은 현을 낳고...”¹⁾라는 비극적 계보학이 만들어진다.²⁾ 소설 전편을 따라 흐르는 두 남성 인물의 운명적 조건에 관한 이러한 의식은 『오만과 몽상』을 70년대에서 80년대로 이어지는 한국식 자본주의의 가속화라는 경제적 조건과 함께 당시 사회의 콤플렉스와 의식 세계 자체에 접근하고자 하는 텍스트로 만들어준다.

반면 이러한 문제의식의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오만과 몽상』에 대한

1) 박완서, 『오만과 몽상』 1권, 세계사, 2102, 155쪽. 이후 본문 내 인용의 출처 표시는 괄호 안에 권, 쪽수로 표기.

2) 『해방 전후사의 인식』 1권은 출간된 뒤 열흘 만에 4000부가 팔렸다. 이후 10.26 사태에 판금이 되었으나 이듬해 봄에 다시 해금되었다. 『논픽션 부문 1위 한길사 해방 전후사의 인식』, 『경향신문』, 1990. 8.11. 23면. 『오만과 몽상』이 연재되기 시작한 1979년 12월이면 계엄이긴 해도 상당한 정치적 해방감을 누리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운 면이 있다. 이 작품은 박완서 소설 세계에서 매우 드물게 남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독특한 장편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심층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편이다. 기존의 논의를 약술하자면, ‘더러운 가계’의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인공들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이것을 실험소설로 살피는 분석³⁾, 성장소설의 틀 안에서 오이디푸스적 권력을 벗어나려는 두 남성의 연대로 해석한 연구⁴⁾, 빈곤을 재생산하는 매커니즘에 집중하여 가난에 대한 선입견을 비판하는 작가적 태도에 집중하는 분석⁵⁾, 소설 속 주된 정서인 불안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⁶⁾, 『오만과 몽상』을 부분적으로 다루면서 자본주의 비판과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를 일정 부분 내면화하고 있는 박완서의 윤리 감각에 대한 분석⁷⁾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방민호의 연구는 불결한 자기 가문의 내력과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인공들의 내면을, 박진의 연구는 “나쁜 아버지”⁸⁾로 상징되는 오이디푸스적 권력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주인공들의 욕망에 집중한다.⁹⁾ 두 연구 모두 초점은 세대 분리 감각과 같은 주인공들의 의식적 측면에 집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 정신분석적 접근을 제외한 이후

3) 방민호, 『불결함에 맞서는 희생제의의 전통성』, 박완서, 『오만과 몽상』, 세계사, 2006.

4) 박진, 『아버지-자본의 타락한 법에 맞서 청년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박완서, 『오만과 몽상』, 세계사, 2012.

5) 조미희,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가난의 기원과 도시빈민의 양상』, 『한국언어문화』 62권, 한국언어문화학회, 2017.

6) 김영택, 신현순, 『박완서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고찰 : 『욕망의 응달』·『오만과 몽상』에 나타난 ‘콤플렉스’·‘불안’을 중심으로』, 『語文研究』 63권, 어문연구학회, 2010.

7) 한경희,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자본주의와 교섭하기』, 『페미니즘 연구』 16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16.

8) 박진, 앞의 글, 281쪽.

9) 박진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자아 이상 속에 정초”할 “좋은 아버지”의 부재 상태를 지적한 바 있다. 위의 글, 274-275쪽. 이 글은 이러한 ‘좋은 아버지’의 부재를 당시 시대 배경과 결부시켜 ‘중산층 남성의 자아이상’의 결핍 상태로 구체화하는 입장을 취한다.

의 연구들은 가난이나 자본주의와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초점화한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그 자체로 나름의 합당성을 갖추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소설의 핵심적인 두 요소인 ‘친일’로 상징되는 사회적 콤플렉스와 자본주의/가난이라는 경제적 요소를 ‘중산층 남성 되기’의 문법 속에서 연동하여 다뤄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소설의 두 남자 주인공이 중산층으로서의 삶을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적, 물질 토대뿐 아니라 윤리적 의식과 정서적 상태 역시 중산층 남성성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데 유의하면서 이 소설을 ‘중산층 남성 되기’의 성장 서사로 해석한다면, 이 소설의 두 가지 핵심 축, 친일이라는 한국사의 콤플렉스 극복과 산업 자본주의의 전면화 속에서의 경제적 생존은 ‘중산층 남성성’이라는 주제 속에 긴밀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 두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글은 콤플렉스 극복과 생존이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함께 다루면서 이 소설을 7-80년대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 남성’ 되기의 성장 서사와 그 윤리적 한계로서 읽어보고자 한다. 우선 박완서 소설 전체에 걸쳐 등장하는 중산층 남성을 거칠게 유형화 했을 때, 경제적으로 무능하거나 외도하는 부정적 남성성(『도시의 흥년』에서 아내에게 위축되어 ‘병신춤’을 추는 아버지나 『살아있는 날의 시작』의 식모와 외도하는 남편,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에서 아이를 가진 약혼녀를 배신하는 혁주 등)과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가부장(『나무』의 태수, 『서울 사람들』의 아버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이는 결국 기성의 가부장이 ‘중산층 남성성’의 이상적 모델로 기능하지 못하는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만과 몽상』의 배경을 이루는 현실이기도 하다. 즉 『오만과 몽상』은 ‘중산층 남성’이라는 자아이상의 구체적 모범이 없는 시대를 배경으로, 부권을 승계하거나 가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던 전통사회에서와 달리 아버지에게서 배울 수 없는 이들을 내세워 이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

지를 문제 삼은 소설이다.

이 소설은 친일파의 후손이면서 기업가 아들인 현과 독립투사의 후손이면서 도배장이의 아들인 남상이 서로의 가게 때문에 절연한 뒤, 현은 가출하여 혼자 힘으로 (남상이 되고 싶었던) 의사가 되기 위해, 남상은 끔찍한 가난에서 벗어나 공장의 관리직으로 성공하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을 중심 서사로 한다. 결국 이 두 남성이 도달하려는 최종적 목표는 이런 것이다. 친일파든 독립투사든, 자신의 죽보와 결별하고 이전 세대로부터 어떠한 물적, 심적 부채도 갖지 않은 자수성가한 남성이 되는 것. 그들은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각자의 운명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이 두 남성 인물 사이에 전통적인 희생양인 듯 보이는 헌신적인 여성 인물 영자가 놓이면서 (보이지 않는)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수년을 절연하고 지낸 두 남성이 영자의 죽음을 통해 다시 해후하는 결말로 끝이 난다. 두 남성이 다시 만나기까지 현에게는 친일파 집안의 부에 빚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기, 남상에게는 독립투사 후손인 부모의 가난함이 더 이상 대물림되지 않도록 공장에서 살아 남기라는 핵심적인 과업이 놓인다. 그리고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세계와 타협하고 타락하게 되는 면면이 부각된다. 여기에 여공 영자의 직업이 말해주듯이 한국 자본주의가 경공업 위주의 성장을 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을 통해 이뤄낸 비약적 발전과 그로 인한 파탄과 희생이라는 사회경제적 상황이 이 두 남성 성장서사의 생존 배경으로 놓인다.

이 짧은 요약에서도 드러나듯이 두 주인공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 없지만 자수성가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일구어내려고 한다. 그들은 서울에 양지바르고 아담한 “연립주택”의 소유주가 되고 “아내와 집, 그리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가재도구와 가전제품”¹⁰⁾을 갖추고 사는 것을 꿈꾸지만, 그들의 진짜 목표는 그러한 삶의 기반 자

10) 박완서, 『오만과 몽상』 2권, 세계사, 2012, 70쪽. 이후 본문 내 인용의 출처 표시는 괄호 안에 권, 쪽수로 표기.

체라기보다는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룬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우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오만과 몽상』에서 두 주인공이 족보와 아버지를 부정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 구현하고자 한 바, 즉 자수성이 신화로 요약되는 중산층 남성의 자아이상은 - 그것이 그들의 가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이 글은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이라는 계층이 단순히 전체 사회 집단의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60년대부터 일정 부분 국가주도 하에 만들어진 한국 사회의 특수한 구성물이라는 인식을 출발점으로 하여,¹¹⁾ 중산층 남성의 자아이상 역시 현실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중산층 남성 집단에서 귀납적으로 형성되었다기보다는 국가 주도의 중산층 담론 속에서 관념적·이데올로기적으로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중산층 남성의 자아이상이 관념적으로 먼저 있고, 그 뒤에 그것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중산층 남성이 되고자 하는 실재가 온다는 것이다. 『오만과 몽상』은 소설적 구성을 통해 이러한 - 어떤 의미에서 전도된 - 현실을 정확히

11) 중산층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이 글의 중심 분석 대상이 아니라 지면을 많이 할애할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국 중산층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정부 주도의 담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산층 담론은 근대화 경제개발의 원동력으로서 중산층 확대에 대한 국가적 요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스위트 홈’에 대한 환상과 맞물려 유지된다. 그러나 “전국민의 중산층화를 위한 중산층 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들을 경제성장 프로젝트에 동원하긴 했으나 중산층은 어떤 명확한 역사적 실체를 지시한 것이 아니었다. 일종의 담론적 구성물로서 중산층이 한 단계 진화하는 기점은 70년대부터인데, 이때부터는 ‘사회안정세력’으로서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한다는 캐치 프레이즈 아래 ‘전형적인 중산층’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진다. 결국 이러한 현실과 이상의 격차는 80년대 중반 『광복40년 분단40년 한국인 의식변화』 여론조사에서 “나도 중산층이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전국민의 70%에 달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는 당시 중산층 자체가 ‘중산층이고자 하는 욕망의 구성물’이었다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주도하고 제시한 중산층 이상의 프레임이 먼저 존재했으며, 이후 실제적으로 중산층이라 불리는, 혹은 중산층이라 불리고 싶어 하는 집단이 형성되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오자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정체성 형상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의 1장과 2장 참고.

반영하고 있다. 소설에서 두 남성 주인공의 중산층 되기 시도가 본래 가난하지 않으면서 가난의 상태를 스스로 선택하는 현의 가짜 가족로망스에서 예감할 수 있듯이 일종의 인위적 실험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 이러한 관념의 실험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관념과 현실은 괴리되어 있으며, 그 괴리로 인해 현과 남상이의 실험은 실패로 돌아간다. 그들은 중산층 남성다운 자력에 의한 정당한 성공을 꿈꾸지만 자수성가의 신화와 그 속에 암시되어 있는 정당성이란 급속도로 진행되는 자본주의화 과정,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가의 영향력 속에서 유포된 정당화의 논리일 뿐이고, 무에서 출발하여 중산층으로서의 경제적 여유를 갖추는 것은 실은 타자의 희생과 몰락을 발판으로 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들은 과거에 대한 부채의식에서 벗어나 깨끗한 새출발을 꿈꾸지만, 그들이 떠난 길은 새로운 죄의식(부채의식)의 구렁 속으로 빠지는 길이였음이 드러난다. 여기서 ‘자수성가’를 가능하게 해줄 자본주의적 교환의 세계는 죄지음을 대가로 요구하는 악마적 세계로 그려진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적 교환 시스템 자체의 죄악성이 특히 두 주인공이 중산층 남성으로 성공하기 위해 이 시스템에 발을 담그는 순간부터 벌써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독특한 ‘예기 죄의식’의 증상으로 나타남을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현과 남상이의 실패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문제다. 두 남성은 소설의 끝에서 본래 목표로 했던 중산층 남성으로의 성장에 실패한 채 본래 자리에 돌아와 있다. 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되돌려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 물음과 대결하는 그들의 내면적 태도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 변화를 매개하는 것은, 교환 시스템 속에서 착취당하는 전형적인 여성 희생양처럼 보이지만 그 시스템에 포섭되지 않기에 결코 희생자가 될 수 없는 존재인 영자이며, 절대적

으로 증여하는 여성 영지는 두 남성 주인공의 내적 변화를 견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오만과 몽상』을 1970-80년대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 남성’ 되기 성장서사의 실패와 그에 대한 윤리적 문제 제기로서 읽고자 한다.

2. 가짜 가족로망스와 자수성가 신화 쓰기의 경쟁

이 소설에서 모든 사건의 발단은 서로 가장 친한 친구였던 현과 남상이 서로의 가게 때문에 절연을 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남상은 현의 집안이 친일파의 후손임에도 대를 이어 부를 불리고 사는 것에 분노하면서 반대로 독립투사의 후손인 자신의 집안이 끊임없이 가난에 시달리는 것을 저주한다. 현은 남상의 이러한 비판에 가장 극단적으로 응수하는데, 그것은 바로 친일파의 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의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문학청년이었던 현은 애초에 자신이 원했던 소설가라는 꿈을 버리고 오로지 남상이 원래 되고 싶어했던 것이 의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대를 선택한다. 현의 자발적 가난은 남상이 자신을 공격한 이유인 친일파 가게의 부에 조금도 연루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자력으로 성공을 이뤄낼 수 있음을 남상에게 증명하기 위한 극단적 선택이었다.

고생이야 말할 수 없이 심했다. 그러나 남상이라는 관객을 의식하는 걸로 견딜 만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동안 네놈은 환경 탓이나 하면서 도배장이나 칠장이, 아니지 그래도 공장의 숙련공쯤이야 돼 있겠지. 늘그막엔 독립투사의 후예답게 수위 노릇쯤 하게 될지도 몰라. 그러나 나는 된다. 네가 우러러보는 의사가. 그때 가서 네놈이 나는 친일파의 자식이기 때문에 의사가 될 수 있었고, 네놈은 애국지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수위가 될 수 밖에 없었

다고 어거지를 쓰지 못하도록 나는 너와 똑똑한 가난뱅이가 되어
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자아 똑똑히 보라.¹²⁾

이러한 양상은 남상이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 남상이는 현의 친일파
가계를 비판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독립투사 가계를 존경하거나 그에
대해 자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독립투사의 명예가
허울 뿐이라고 생각하며 그 자부심에만 빠져 현실을 보지 못하고 집안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와 무능한 도배장이인 아버지에 대한 증오에 사로잡힌
다. 흐릿하게나마 독립투사의 유지가 그의 마음 속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남상이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악인 ‘가난’이다. 남상이가 취직이
된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독립투사 증조부의 사진에 구멍을 내고 부모
의 집으로부터의 독립한 것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물 수는 없더라도 언젠가는 그 분을 잊어버리게 되리라. 뒤로부
터 세 번째 줄의 오른쪽에서 여섯 번째 숫자도 함께.

남상이는 볼펜을 꺼내 뒤에서 세 번째 줄의 오른쪽에서 여섯 번째
얼굴의 이마에다 자국을 냈다. 낙인을 찍듯이.¹³⁾

현과 남상이에게는 친일파의 부로 인한 부도덕함이든 후손들에게 끔찍
한 가난만을 남긴 독립투사의 명예든 각자 자신의 가계는 부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그들이 꿈꾸는 것은 이전 시대처럼 혈연이 보증해주
는 신분이나 족보로부터 자유로운 삶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자신들의 가계를 부정하고 그로부터 뛰어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에서 프로이트가 말한 “자기들이 낮게 평가한 부모에게서 벗
어나기 위해”¹⁴⁾ 진짜 부모를 찾는 것, “부모를 고귀한 신분의 사람으로

12) 박완서, 앞의 책 1권, 33쪽.

13) 위의 책, 95쪽.

14)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정일 역, 『가족로맨스』,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

바뀌버리는 상상”¹⁵⁾인 가족로망스의 증상을 읽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¹⁶⁾ 그렇다면 이것을 현과 남상이 개인의 심리 상태라기보다는 자신의 가계를 부정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룬 성취를 서로에게 증명하고 싶어 하는 공통의 정서로서 접근하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린 헌트는 개인적 심리에 바탕을 둔 프로이트의 용어를 집단의 정치적 무의식의 차원으로 확장시켜, 낮게 평가된 정치적 부모로 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했던 욕망이 프랑스 혁명의 정서였다는 점을 지적한다.¹⁷⁾ 이러한 욕망을 부정적인 권위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체”를 상상해보기 위한 노력¹⁸⁾으로 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현이 부정한 가계와 절연하고 자신을 새롭게 정체화하기 위해 찾은 가치는 무엇인가? 현이 “끝내 자력으로 살아가기 위한 고된 자기 단련”(1권 198쪽)을 절대적인 자기 규율로 삼고 남상에게 보여주고 싶어했던 것은 바로 제 힘으로 의사가 되었다는 자수성가 서사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력’에 의한 성공이라는 공정성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남상에게도 이 자수성가 서사는 그가 찾은 새로운 가치였는데, “소에 구애되어 대를 그르칠 수야 없지 않은가. 난 이래뵈도 자수성가한 사람일세”(1권 285쪽)와 같이 끊임없이 속삭이는 나사장의 자수성가 이데올로기는 남상을 나사장의 사람이 되도록 유혹한다. 나사장이 어딘가 꺼림직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의 공장으로 다시 들어간 것은 자수성가로 공장주가 된 나사장의 입지전이 남상에게는 자신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청사진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남상의 어머니 역시 남상이 현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낙담하자 “가안 원체 있는 집 자숙이고, 년 앞으로 자수성가할 사람이고 그런께 비교할거 읊어”(1권 318쪽)라고 그

책들, 2004, 200쪽.

15) 위의 책, 201쪽.

16) 박진 역시 “나쁜 아버지”에 맞서 이를 극복하려는 두 남성의 여정에 대해 적실하게 지적한 바 있다. 박진, 앞의 글, 280쪽.

17) 린 헌트, 조한욱 역, 『프랑스 혁명의 가족로망스』, 새물결 출판사, 2000, 10쪽.

18) 위의 책, 11쪽.

를 달린다. 결국 이 둘은 서로를 각자의 삶의 관객으로 삼아 누가 먼저 자수성가를 하는가, 자수성가 서사 쓰기 경쟁을 하는 셈이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가계(정확히는 부계)를 거부한 뒤 찾은 새로운 이데올로기이자 이상적인 가치였기 때문이다.

이 자수성가 신화는 혈연이나 신분에 의존한 이전 세대와 달리,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한 주체라는 근대의 기본 전제에서 시작한다. 물론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실제적인 기대로 이어진 것은 전후 폐허에서 혼란의 60년대를 끝낸 뒤, 70년대에 들어와서야 1974년 고교 평준화, 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전두환 정권의 과외 전면 금지 실시, 대기업 공채의 시작 등으로 이어지는, 바야흐로 이제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는 달라진 분위기에 힘입은 바가 크다.¹⁹⁾ 여기에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대통령이 된 입지전을 쓴 박정희 개인의 서사가 하나의 자수성가 이데올로기처럼 작동했으며, 이는 이른바 박정희 정권의 체제 슬로건인 ‘잘살기 운동’을 표방하는 새마을 운동²⁰⁾에서 볼 수 있듯, ‘노력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근대의 사회구성 원리가 현실화되어가는 환상이었다.²¹⁾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기 힘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남상이가 꿈꾸었던 것처럼 누구나 “아내와 집, 그리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가재도구와 가전제품”을 쟁취하고 서울에 양지바르고 아담한 “연립주택”(2권 70쪽)을 가진 중산층이 될 수 있을 것

19) ‘평등 담론’은 당시 정권이 대중을 동원하는 주요한 장치였는데, 박정희는 차별과 불평등을 전근대성이자 봉건성으로 간주하고, 실제 생활 속에 존재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1인 1표의 정치 평등(민주주의)과 1주 1표의 경제 불평등(시장이라는 조합으로 정당화)하고자 한다. 황병주, 『유신체제의 대중인식과 동원담론』, 『상허학보』 32집, 상허학회, 2011, 155쪽. 그리고 이것은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하지만 경제능력에 따라서 불평등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 결론”으로 귀결된다. 위의 글, 같은 면. 결국 이는 경쟁의 근본 조건은 모두에게 공정한 것이라는 환상은 유지하되 이후 경쟁의 결과로서 경제력에 따른 불평등은 용인된다는 논리이며, 이것은 자수성가 신화의 근본적인 추진력이라 할 수 있다.

20) 위의 글, 166쪽.

21) 황병주, 『박정희와 근대적 출세 욕망』, 『역사비평』 89호, 역사비평사, 2009, 258-260쪽 참조.

이라는 꿈의 근본적인 추진력이다.²²⁾

여기에서 ‘자수성가’는 국가의 공식담론으로서 중산층 남성이 가진 정서적 자부심의 증핵을 이룬다. 어느 시기에나 한 형태의 남성성이 다른 형태들보다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게 되어 있으며,²³⁾ 남성성이 특정한 시공간에서 생겨나고 변화하는 것²⁴⁾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 사회의 이 시기는 어느때보다도 ‘밑바닥에서 공정하게 자력으로 성공을 일궈낸 남성’이라는 입지전이 대중들에게 이상적으로 유포되었으며 그것이 강력한 남성성의 요소로서 기능하던 시대였다.²⁵⁾ “그의 가난이 지독하면 지독할수록 혼자 힘으로 산다는 것 속의 혼자가 순수하고 완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그런걸 건널 힘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만족하는”(1권 198쪽)하는 현의 심리는 남상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아내와 집, 그리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가재도구와 가전 제품 등, 5년 동안에 그는 그것들을 문자 그대로 정신없이 쟁취한 것이다. 행정구역상으론 서울이지만 야산과 밭이랑 사이에 있는 그의 연립주택은 양지바르고 아담했다.²⁶⁾

그는 다만 30대의 자수성가한 가장일 뿐이었다. 자수성가란 그에게 실로 자랑스러운 사업이었다. 부모 덕을 안 입었다는 뜻에서보다도 족보의 영욕의 그들로부터 홀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길로.²⁷⁾

22) 박완서 소설들에 나타난 자수성가 모티프에 대해서는 오자은, 앞의 논문, 3-2장 참조.

23) R.W 코넬, 안상욱, 현민 역, 『남성성/들』, 이매진, 2013, 124쪽.

24) 위의 책, 276쪽.

25) 김은하는 70년대 소설의 남성성에 대해 분석하면서, “의지력, 목표지향성, 독립성, 비타협성” 등을 중심으로 한 남성성의 핵심 구성 요소들이 마치 선천적인 것처럼 신념화되어 왔지만 실제로 남성성은 사회적, 문화적 구성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김은하, 『1970년대 소설과 저항 주체의 남성성-황석영의 7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제7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07, 251쪽.

26) 박완서, 앞의 책 2권, 70쪽.

27) 위의 책, 71쪽.

이 ‘자수성가 신화’가 일종의 보편적 연원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자본주의 발전기 시민 계급의 탄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의 형태가 토지에서 자본으로 전환되면서 물려받은 부가 없이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시민 계급은, 단순히 사회적 권위와 부를 혈통에 의해 세습한 귀족에 맞서서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성취를 이룬 계급으로 자신을 차별화한다. 자수성가는 세속화되어가는 사회에서 부를 일군 새로운 계급의 정당화 논리였으며 경제적 헤게모니를 넘어서 정치적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였다. 이 인정투쟁 구조의 혈통 귀족은 한국사회에서 “족보의 영욕의 그늘”(2권 71쪽)로 변주되고,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하면 된다’ 캐치 프레이즈 속에서 ‘밑바닥에서부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경쟁 주체들이 양산된다. 그러나 자수성가는 그 내부에 일종의 모순이 포함되어 있다. 자수성가는 자기 힘으로 이룬 성취라는 ‘도덕적 근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절대 규율 속에서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부정(不正)에 대한 자기합리화와 정당화의 논리이기도 했다. 작업 중 손을 다친 여공의 정당한 처치를 적당히 무마하고 남상이로 하여금 공원들을 해고하도록 조종하는 나 사장의 명령은 언제나 “나 이래 배도 자수성가한 놈인 거 자네도 알지?”(2권 80쪽)라는 자기변명과 함께 등장한다.

또다른 문제는 이 이데올로기가 그 출발에서부터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현은 부정한 친일파의 가게에서 벗어난 자신의 자수성가를 남상이에게 증명하고자 하지만, 자수성가라는 자기 서사의 완성 자체에만 맹목적으로 매몰되면서 그것을 위한 사소한 부정은 필연적이며 불가피한 것이라고 정당화하는 모순에 빠진다. 현은 가출을 하면서도 “훗날 남상이에게 보여주기 위해 전혀 뒷받침없이 의사가 돼야 하지만 속속들이 무일푼일 순 없었”(1권 32쪽)기 때문에 “상당한 금품을 훔쳤지만 그건 정당한 뒷받침이 아니었으므로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남상이한테 책잡히지 않을 일이면 곧 옳은 일”(1권 32쪽)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현과 남상이를 절연시켰던 족보의 영욕 자체가 허상에 불과한 것임이

폭로된다. 현은 나중에 우연히 해후한 어머니에게 자신이 친일과 가계의 후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집안에 의해 쫓겨나게 된 행랑아범의 자식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현의 어머니가 행랑아범에게 겁탈을 당해 낳은 아들이 바로 현이었던 것이다.²⁸⁾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순전한 능욕이었다. 원한에 사무친 원한이 아무리 하늘에 닿아도 풀 방법은 오직 그것밖에 가진 게 없는 자의 슬픈 몸부림이었어. 혼자 사는 집도 아니겠다. 약간의 망신을 각오하거나 최악의 경우 목숨을 걸 생각이었다면 그 능욕을 안 당할 수도 있었을 테지. 못 그런걸 예미가 음탕해서라든가 목숨에 치사해서라고만 생각지 말아다오 그 자가 원한을 풀 수 있는 그 마지막 방법은 성공시켜주고 싶었다. 사무친 원한의 마지막 복수는 그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이면서 곧 천벌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 그때 나는 천벌 받고 있는 것처럼 속속들이 무섭기만 해서 감히 거역할 엄두도 못 냈단다.²⁹⁾

현이 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그들이 젊음을 바쳐 믿은 것, 또는 저항한 것의 가치의 허망함”(2권 189쪽)을 깨닫는 장면은 상징적이다. 가짜 가족로망스와 그로부터 출발한 자수성가 신화의 맹목성은 그 내부에 이미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의 전면화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한 정당화 논리로 계속 기능할 것이라는 점이 계속 암시된다. 공정한 자수성가라는 이데올로기는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사회에서 부를 축적한 새로운 계층의 정당화 논리로서 경제적 정당성 뿐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정당성의 토대 역할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어딘가 미심쩍다는 것, 그리고 현과 남상이 스스로도 미심쩍음을 알면서도 그 자수성가의 환상을 자가발전시켜 생존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드러

28) 박진은 이러한 가계가 허상임을 알게 됨으로써 두 남성은 화해하고 “비오이디푸스적 연대”를 맺게 된다고 해석한다. 박진, 앞의 글, 282쪽.

29) 박완서, 앞의 책 2권, 181쪽.

낸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그 생존의 이면, 자수성가의 신화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자.

3. 교환가치의 세계와 ‘아직 짓지 않은 죄’의 죄의식

집을 떠난 현과 남상이가 도착한 세계, 그들이 자수성가 신화를 써내려 가야 하는 세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가? “나는 너와 똑같은 가난뱅이까지 되어 새롭게 시작”(1권 33쪽)하겠다는 현의 의지처럼, 자발적으로 고학생이 된 현과 도배장이의 아들인 남상은 모두 공평하게 ‘가난’을 출발점으로 삼게 된다. 현의 가난은 변두리 동네의 낡은 이층집 자취방에서 여공과 술집 여성과 나란히 이웃하며 살고, 학기 중에는 온갖 과외로 학비를 버는 고된 생활로 묘사된다. 남상이에게 가난은 “무엇으로도 수식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최악의 것”(1권 287쪽)이며, 따라서 이는 화장실도 없고 물도 나오지 않는 철거촌 판잣집에 갇힌 비위생적인 부모와 불결한 여동생들로 상징된다. 현은 무사히 의대를 졸업해 의사가 되는 것으로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고 남상은 공장에 여엿한 과장이 되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 공평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이 각자 입사한 새로운 세계는 바로 점점 전면화 되는 자본주의의 세계다. 『오만과 몽상』이 1982년 단행본으로 발간되었고 1979년부터 『한국문학』에 연재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이 소설은 70년대 전반을 배경으로 당시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현과 같이 자취하고 현을 사랑하던 봉제공장 미성공 영자의 공장 생활과 남상의 공장에서 여공 복설이의 산재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원들의 집단 항의 등을 통해서도 당시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노동 환경의 열악성, 저임금, 추가 근무 등의 노동 착취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막 시작되는 노조 결성의 움직임들이 묘사된다. 한편 현의 의대생활을 통해서도 의료혜택

의 불균형을 통해 70년대의 의료보험 문제가 부각된다.

현이 참여한 진료 봉사반이 맡은 야학당 학생이 “어떡허든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큰 공장에 취직이 돼서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는게 새해의 가장 큰 소망”(2권 20쪽)이라고 쓴 작문 내용은 정확하게 70년대 실시된 의료보험법의 문제를 지적한다. 1977년 7월 5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직장의료보험이 실시³⁰⁾되었으나 그 이하 대부분의 소규모 공장에서는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보험제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다. “의료혜택이 극소수에 편중됨으로써 그 극소수에 의해 얼마나 낭비되고 일종의 사치로까지 전락”(2권 44면)하는지 설명하거나 이 시대의 의술이란 “염통이 끓아 죽어가는 사람 방치하고 손톱 밑에 가서 든 사람에게 봉사하는”(2권 46쪽)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들은, 부(富)의 소유 정도에 따라 인간의 기본권마저 차별 대우하는 사회의 불균형에 대한 묘사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재빨리 터득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절대 규칙,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교환가치’로 빠르게 환산하여 손익계산을 통해 ‘최대한 적게 주고 많이 받는’ 셈속을 차리는 것이다.

튀니스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에서 시민사회(부르주아적 자본주의 사회)를 교환사회, 즉 모두가 교환을 통해 자기 이득을 취할 태세가 되어 있는 사회, ‘모두가 상인인 사회’라고 본다. “이 사회에서 모든 개인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그 이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다른 이들의 이익도 인정한다. 모두의 모두에 대한 관계는 규약이나 계약 이전, 혹은 바깥으로 나가면, 잠재적인 적대 관계나 전쟁에 가까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³¹⁾ 그렇다면 여기에는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의 교환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판단 역시 매우 중요하다. 자기 자신도 일종의 상

30) 김민식, 『의료보험 행정의 역사적 변천 과정 소고』, 『한국행정사학회』 11권, 한국행정사학회, 2002, 272쪽.

31) Ferdinand Tönnies, *Community and Civil Society*, Cambridge, 2001, 64-65쪽. 해당 부분의 번역은 필자가 하였음.

품이기 때문이다. 현은 의사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거쳤던 만큼, 자신은 높은 교환가치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여긴다.

아시다시피 의과대학 공부라는 게 의사로서의 인격적인 자질은 커녕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만도 극도로 이기적 배타적 초인적이 되지 않으면 낙오할 수 밖에 없게끔 짜여져 있지 않아요? 자나 깨나 공부, 암기, 시험, 항상 고개를 발뚱 채치고 위를 보고 걸어야지 잠시도 자기보다 못한 놈을 보기 위해 내려가 봤다간 추락해서 영영 낙오하고 말 것 같은 불안, 초조. 이런 가혹한 경쟁을 견디게 하는 건 개인주의적인 입신양명이나 치부도 할 수 있고 존경도 받을 수 있는 직업인 등, 전도에 대한 양양한 약속밖에 더 있겠어요. 남이 안하는 치열한 경쟁을 거쳐 어렵게 획득한 걸수록 높은 교환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건 당연하죠.³²⁾

뿐만 아니라 현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영자를 떼어놓기 위해서 간호원인 성혜를 이용하려 한다. 영자가 청소하고 있는 자취방에 일부러 성혜를 데려와 두 여자를 마주치게 하고 영자가 그 충격으로 자신을 떠나도록 하는 계략은 바로 그 교환가치에 의거한 논리의 결과물이다. 미싱공에게 의사인 자신의 가치는 가당치도 않으며 간호원에게도 의사의 가치는 넘치기 때문에, 미싱공 영자에게 모멸감을 줘서 내쫓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간호원인 성혜를 거기에 이용하는 것도 ‘그럴 수 있는 일’이 된다. 의사인 자신이 간호원인 성혜와 몇 번의 데이트를 해주면서 연애 기분이 나게 해줬기 때문이다. 딱 그 정도면 족한 것이다.

가책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자신이 받을 가책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변명까지 벌써 마련해놓고 있

32) 박완서, 앞의 책 2권, 49쪽.

었다. 미싱공에게 의사가 가당치도 않은 것처럼 간호원에게도 의사는 과람하거든. 나는 내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고 거기 맞게 처신 하고자 할 뿐이야.³³⁾

이처럼 현이 자신이 고학으로 획득한 의사라는 세속적 지위의 가치를 충분히 익히고 그것을 세상살이에 적용한다면, 남상이는 공장에서 나 사장의 사람이 되어 공원들을 적당히 부리고 어음놀이를 하면서 돈을 버는 식으로 그 세계에 적응한다. 남상이가 처음에는 공장 내 안정적인 지위를 위해 나 사장의 심복 노릇을 하다가 점점 영세업자들을 대상으로 어음할인을 하면서 그 차액을 불러 이자놀이를 목돈을 만지는 모습은 자본주의의 교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층적으로 보여준다.

마치 낭떠러지를 미끄러지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일은 이제 가속까지 붙어서 그의 힘으론 멈출 수가 없었다. 그의 돈도 가속이 붙어서 붙어났다. 자기 돈으로 할인해준 어음만도 천만 대가 넘었다. 이자놀이란 참으로 신기하고 고소한 놀음이란 생각이 그를 마냥 즐겁게 했다. 그는 철제 금고에서 나 사장의 약속어음을 꺼내서 세어보고 날짜가 된 것을 은행으로 돌려서 떨어지면 다시 붙어난 액수의 어음으로 바꾸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미와 아내의 배가 달덩이처럼 만삭으로 치닫는 길 지키는 감동을 혼동하면서 그 나름으론 숨가쁘게 하루하루를 지냈다.³⁴⁾

‘최대한 적게 주고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것’이라는 교환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세업자들을 대상으로 어음할인을 하며 결국 이자놀이꾼으로 전락한 남상이의 모습에서 완전히 확인된다. 금고에 쌓여가는 고리의 이자들을 유지하기 위해, 남상이는 자신에게 떨어지는 목돈들의 원천이 사실은

33) 위의 책, 59쪽.

34) 위의 책, 216쪽.

나 사장의 공장에서 공인들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착취당한 결과라는 것을 외면해야만 한다. “이제 마음 놓고 아이들 임금 한두 달 밀려도 되게 됐”(2권 217쪽)다는 나 사장의 말은 남상이에겐 그저 응석처럼 들릴 뿐이며 그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 사장이 공원들을 함부로 해고하는 일에도 남상이는 동조하며 오히려 앞장서기까지 한다. 나 사장의 공장은 남상이의 목돈이 만들어지는 원천지이자 착취의 현장이었다.

“그는 빨리 많은 돈을 벌고 싶었다. 수단 방법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았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을 벌란 소리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란 말은 참으로 고무적이었다”(2권 214쪽)로 요약되는 그의 생각은 그가 자수성가로 이뤘다고 믿는 바로 그 부의 실체, 언젠가 ‘정승’같이 쓰기 위해 현재 한시적으로 ‘개’같이 버는 것 뿐이라고 믿는 그 신념의 정체가 사실은 착취의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시민 계급의 부-혈연과 신분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냈다고 믿었던 공정한 부가 사실은 농민과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약탈과 착취를 기반으로 한 것임을 밝힘으로써 시민계급의 윤리의 허구성을 폭로했던 마르크스의 논리는 한국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유효하다. 또한 이는 ‘교환가치로의 환원’이라는 자본주의의 자연화 된 절대율이 엄청나게 팽창하고 모든 것이 ‘거래’의 대상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한국의 70년대, 그러한 거래가 매정하거나 비정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간주되기 시작한 시기에, 이러한 자본주의의 논리를 습득해가는 두 남성이 결국 어떠한 파탄을 맞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실험적 세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과 남상이를 계속 지배하는 정서는 바로 ‘죄의식’이다. 여기에서 이 죄의식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자신이 이미 지은 죄에 대한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흥미롭게도 자신이 어떤 죄를 지을지, 혹은 짓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직 짓지 않은 죄에 대한 ‘죄의식’을 지속적으로 느낀다.

그러나 현이 지금 몸서리를 치고 있는 것은 H라는 환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였다. 그는 H에 대해 의학도로서의 각별한 관심의 도를 지난 매우 걱정적인 증오와 연민을 번갈아 품고 있었는데 그걸 밖으로 나타내지 않고 안으로만 다스리기는 여간 힘겹지 않았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죄의식이 투사하는 거가 아닐는지. 그럴 리는 없지. 나는 아직 죄를 저지르진 않았으니까. 그러나 내일부터면 겨울방학이다. 나는 곧 그 일을 저지러 수 밖에 없을 것이다.³⁵⁾

현은 자신을 사랑하고 있으며 자신의 생활을 보살펴준 영자의 헌신을 이용하지만 그 헌신을 누리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죄의식을 느낀다. 그것은 현재 영자의 고생에 대해 미안함이 아니라, 영자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자신은 언젠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영자를 버리고 떼어내 버릴 것이라는 예감을 동시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감정이다. 또한 자발적 가난 속에서 제 힘으로 의사가 되었다는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현은 다시 원래의 집안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영자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존재였다. 그리고 현은 이러한 죄의식이나 자괴감이 자신이 7년간 머물렀던 가난을 완전히 등지고 다시 부유한 삶으로 회귀하는데 값하는 일종의 ‘비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죄의식은 영자의 상처의 교환 대상으로서 기능할 뿐이다. “실상 영자는 중요하지 않았다. 7년 동안 자신이 몸담았던 끔찍한 삶과 미련 없이 결별하기 위해선 그 정도의 상처를 입어야 할 것만 같았다.”(2권 38쪽)와 같은 구절은 현의 이러한 계산을 잘 보여준다.

그뿐 아니라 영자를 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현은 간호원인 성혜와 일부러 연애를 하고, 임의로 그 두 여자의 교환가치를 동등하게 설정한다. 그것은 현이 배운 교환 논리의 세계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

35) 박완서, 앞의 책 1권, 214쪽.

기에 그는 자신과 오랜 관계를 맺어온 미성공 영자의 가치를 몇 번 만난 적 없는 간호원 성혜의 가치와 동등하게 놓아 등가교환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그 둘의 위치를 바꾸려고 한다. 그 교환 논리 속에서는 “영자의 한눈에 성혜가 자기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상대라는 걸 알고 현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깨끗이 물러나게 되겠지”(1권 228쪽)라는 계산이 가능했고, 이후에 성혜 역시 그 과정을 굴욕적으로 느껴 최종적으로는 자신에게서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했다. 전술했듯이 성혜는 ‘의사’인 자신의 가치에 비해 떨어지는 ‘간호원’이므로 이렇게 될 경우 그는 ‘최대한 적게 주고 최대한 많이 남기는’ 교환 논리의 셈속을 넘어, ‘최대한 착취하고 최대한 많이 남기는’ 자본주의 논리의 승자로 남는다.

그가 원하는 건 문자 그대로 상쇄였다. 오로지 상쇄하기 위해서 그 여자들은 서로 동등할 필요가 있었고, 그가 놓여나기 위해서 그 여자들은 서로 상쇄할 필요가 있었다. 다만 그의 필요에 의해 그는 갑자기 나타난 성혜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영자와의 관계와 맞먹을만큼 친해지기로 작정하고 있었다.³⁶⁾

이러한 측면이 현의 경우에는 연애관계에서 두드러진다면, 남상이의 경우는 그가 새롭게 취직한 공장의 공원들과 나광대 사장과의 역학 관계에서 선명하게 부각된다. 남상이는 나광대 사장에게 취직을 부탁하기 위해 찾아가고 나 사장은 흔쾌히 그를 받아들이지만 정확히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 남상이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 알고 싶어하지만 나 사장은 “당장 몰라도 돼. 차차 알면. 자네 내 사람이 돼 주는 거지?”(1권 146쪽)이라는 말로 남상이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문제는 동시에 나 사장이 아직 일을 시작하지도 않은 그에게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선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

36) 위의 책, 228쪽.

는 상태에서 “내 사람”이 되어준다는 값으로 받은 이 선금은 이른바 “몸값”인데, 남상이는 이것이 어떤 “예약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무엇에 대한 예약금인지 스스로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나 이 몸값을 미리 선불 받은 상태에서 남상이가 확실히 느끼고 있는 것은 그가 선불로 받은 이 돈만큼, 그리고 이 돈 이상에 값하는 어떤 죄를 미래에 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나 사장의 심복이 되어 공원들을 감시하고 해고하는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어렵פות한 확신, 아직은 죄를 짓지 않았으나 이미 “예약금”을 받았으므로 중국에는 죄를 짓게 되리라는 데에서 오는 예기 죄의식이다. 그는 “사람 잘못 보셨습니까니다라고 그럴걸. 그럴 걸. 아아 그럴걸!”이라고 외치며 “열렬하게 후회”(1권 275쪽)하지만 절대 입 밖에 내뱉지 않는다. 예약금을 받은 이후 남상이는 “마을 앞 허허벌판에 얼어붙은 채 누렇게 오염되고 있는 개천 줄기가 그의 핏줄이 되어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1권 264쪽) 같은 감정을 계속 느낄 뿐이다.

그러나 그 돈은 그의 고민하는 시늉을 먼지처럼 가볍게 털어냈지 않은가. 나광대가 몇 번이나 강조한 ‘자네는 내 사람’이란 말 속에서 몸값의 냄새를 맡았다면 이젠 그 예약금이라도 된단 말인가. 그는 나광대에 의해 자기의 몸값이 얼마나 험하게 책정됐나를 보는 것 같은 참담한 기분으로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배를 불리고 나머지를 움켜쥐었다.³⁷⁾

남상이가 미리 가불받은 몸값은 교환 논리 속에서 언젠가는 자신이 죄를 지어야 한다는 것, 누군가를 착취해야 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한다. 선금으로 달콤하게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 대가가 무엇인지를 불문에 부치는 나광대 사장의 형상은 ‘광대’라는 이름이 주는 그로테스크함

37) 위의 책, 153쪽.

처럼 자본주의 사회의 메피스토펠레스, 악마의 형상이다. 먼저 인간적으로 소탈하게 다가와 금전을 제시하면서 그 돈의 대가로 무엇이 요구되는지 모르게 하는 것, 남상을 ‘빚쟁이’, 채무자로 만들고 자신은 후일에 ‘채권자’가 되어 남상에게 공원들과의 의리, 정, 명분을 빼앗고 비인간적으로 그들을 해고하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 헐값에 선물로 받은 ‘예약금’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악마성이다. 남상은 언젠가 죄를 지어야 한다는 예감 때문에 죄의식에 시달리지만, 생존에 대한 맹목성 때문에 그 예약금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리고 나광대의 공장에서 사측 잘못으로 조막손이가 될 위기에 처한 여공 복실이를 도와주는 척 기만하고, 한 푼을 아끼기 위해 대학 병원에 보내지 않으려는 나광대 사장을 도와 그녀를 회복 불능의 장애인으로 만든다.

그리고 후일에 점점 뻘뻘해진 남상이 어음 할인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그 차액으로 목돈을 만질 무렵, 나 사장은 남상도 모르게 일부러 부도를 내버리고 자신은 재산을 챙긴 채 도주함으로써 중국에 남상을 파탄에 빠뜨린다. 그러나 ‘파탄’이라는 자신이 받게 될 최종적 대가를 예상할 수 없었던 남상은 복실이와 관련된 일련의 일들을 “별 수 없어. 어차피 스물여섯이란 그런 나이일거야.”(1권 307쪽)이라고 위안하며 자신의 죄를 성장에 필요한 자원이자 거쳐가야 할 관문으로 의미화 한다. 그 뿐 아니라 복실이의 연인인 덕환이가 노조를 결성하려는 의지가 보이자 두 연인을 아예 공장에서 내쫓아버린다. 그 대가로 남상은 “30대의 자수성가한 가장”(2권 71쪽)으로 존재전이에 성공하지만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4. 증여하는 여성과 성장하지 않는 남성 성장 서사

남상이 공장에서 나 광대 사장의 신임을 얻고 “30대의 자수성가한 가장”이 되는 데에는 전술했듯이 복실이의 희생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

다. 또한 복실이 가 덕환이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풍기문란의 죄목을 씌워 그 둘을 해고하고, 덕환을 정신적 지주로 삼고 노조가 결성되기를 기대했던 공원들의 꿈도 빼앗는다. 복실을 조막손이로 만든 것, 급기야는 그들을 해고한 것은 남상이 스스로가 오로지 더 안정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일 뿐이었다. 이처럼 남상에게 그의 입지전의 발단에 여공 복실이의 조막손이 필요했다면 현에게는 미싱공 영자가 필요했다.

고학생 현이 의대생에서 의사가 되는 과정에는 영자와의 만남과 이별이 동반된다. 영자는 이후 남상의 아내가 되는 인물로서 두 남성을 운명을 매개하는 역할을 부여받아 사실상 두 남성 인물만큼 비중 있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이 영자는 대개 두 남성의 “갱생”을 위한 “희생양”³⁸⁾이나 “중산층 남성의 성폭력 상으로 처리”³⁹⁾된다고 설명되어 왔다. 영자는 “수동적인 피해자”로서 “중산층 남성 혹은 부르주아 남성에게 성적 가학의 쾌락을 제공하는 상으로 소모”⁴⁰⁾되며, “중산층 이상의 남성과의 결혼 혹은 사랑을 꿈꾸었으나 성폭력의 상으로 처리”되면서 “계급 상승은 저지”된다⁴¹⁾는 설명이다. 희생양이나 피해자라는 다른 용어를 채택하고 있지만 두 남성에 의해 수동적으로 희생된다는 점에는 의견이 모아진다.⁴²⁾ ‘남성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여성의 비참한 죽음’이라는 표면적인 서사의 층위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그렇게만 해석하기에 사실 영자는 이 소설 속 모든 인물 중에 가장 주체적이면서 가장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과 남상이 중산층 남성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자수성가를 이루어야 하는 생존의 세계는 전술했듯이 시장주의, 자본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하는 70년대다. 모든 것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38) 방민호, 앞의 글, 456쪽.

39) 한경희, 앞의 글, 297쪽.

40) 위의 글, 같은 쪽.

41) 위의 글, 같은 쪽.

42) 방민호의 경우에는 이 소설을 희생제의적 구조로 파악하여 영자를 희생양이자 두 남성을 구원해주는 인물로 의미화 하고 있다.

자기 자신마저 교환 가치로 환산하는 법을 익혀 ‘최대한 적게 주고 최대한 많이 받는’ 것,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종의 착취들을 자연스럽게 은폐하고 그 균열들마저 자수성가 신화 속에 통합시킬 줄 아는 능력을 요구하는 세계이기도 하다. 심지어 현에게는 자신의 자발적 가난마저 성혜를 이용하기 위해 연애를 시도할 때 소용되는 ‘연애 자원’이 된다. 현의 자수성가 서사는 남성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하며 남자의 “무용담”(2권 62쪽)으로서 “자신을 우상화”(2권 62쪽)시키는 자원으로 요긴하게 쓰인다.

문제는 이처럼 세계의 모든 것이 교환가치에 의한 거래의 관계망 속에 존재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그 절대율 속에서 자발적으로 벗어나 있는, 그리고 그 절대율의 작동방식과 그것이 초래하는 파탄에 대해 이미 간파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로부터 자신은 계속 벗어나 있을 것임을 선언하는 존재가 바로 영자라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영자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다. 영자는 처음부터 자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 것을, 자신은 어떠한 대가도 없이 헌신하고 있는 것임을, 따라서 자신의 헌신에 값하는 어떤 대가도 주지 말 것을 현에게 선언한다. 거의 강제로 이루어진 현과의 첫 성적 관계 직후에도 영자는 그 관계에 대한 책임이나 그로 인한 사랑의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현과의 사랑이나 연애는 영자가 자신의 헌신에 대한 대가로 기대한 것이 아니었으며 영자는 현에게도 그것을 반복해 밝힌다.⁴³⁾ 자신의 주장이 거의 없는 영자의 말들 속에서 유일하게 뚜렷이 주관이 드러난 대목은 바로 “오빠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1권 187쪽) 와 같은 강요, 아무것

43) “나 요새 돈 많이 벌어. 시다 때하곤 달라. 나 한 입 먹고, 나 한 몸 입자고 고생하는 건 너무 재미없어. 우리 방 언니나 내 친구들처럼 나도 돈 벌면서 나 아닌 딴 사람 핑계를 좀 대고 싶은 거야. 아까도 오빠한테 같은 소리 했잖아. 잘해주고 싶 다구. 그러니까 이걸 오빠가 아까 나한테 한 것하곤 아무 상관없어. 내 말이 훨씬 먼저였잖아. 오빠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난 그렇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오빠도 내 청 들어줘야 해.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는 청도 못 들어줄 거 없잖아.” (박완서, 앞의 책 1권, 192쪽.)

도 자신에게 주지 말고 그저 가만히 받기만 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신에 대해서 절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이었다.

오빠 가만히만 있으면 돼. 언제든지 갚아주겠거니 해서 이려는 것도 아니고, 두고두고 공치사하려고 이려는 것도 아니니까. 오빠는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고, 나는 돌볼 사람이 필요해. 서로 필요해서 이려는거야. 그치만 오빠가 먼저 내가 안 필요해지면 내가 아무리 오빠가 필요해도 얼씬도 안 할게. 약속해 정말이야.⁴⁴⁾

오빠는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고 나는 돌볼 사람이 필요해. 서로 필요해서 이려는거야. 그렇지만 돌보고 마음으로부터 잘해줄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아마 오빠도 잘은 모를거야. 아무도 모를거야. 몰라도 좋아. 오빠 나에게 그런 사람인걸로 충분히 감사해. 웬 줄 알아? 나에게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나도 딴 애들처럼 재봉틀 기름이 돼버렸을 테니까. .. 재봉틀에 우리 마음이 옮겨붙은 것처럼 그게 알아서 저절로 돌아갈 때쯤 우린 다 녹아버려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게 돼. 아무것도 그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야.⁴⁵⁾

영자의 논리는 교환논리에 기반한 경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현의 입장에서서는 이상할 만큼 불가해하게 들린다. 현에 대한 자신의 무조건적인 현신이 없다면 자신은 “재봉틀 기름”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것이 그녀의 논리였다. 월급을 받기 위해, 단지 돈을 모으고 그것을 자신의 치부(致富)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재봉틀을 돌리다보면 결국 그 재봉틀의 기름이 될 것이라는 영자의 논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한 노동, 자신의 경제적 안정만을 위한 노동은 결국 기계의 부품처럼 자기 자신을

44) 위의 책, 203쪽.

45) 박완서, 앞의 책 2권, 9쪽.

소모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대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인간을 부품화 하여 배치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의 논리 속에서는 자신의 인간성이 기계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는 종속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영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항을 꿈꾸는 것이다. 인간성마저 재봉틀의 기름으로 사물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자본의 강력한 힘이라면, 영자는 자기 자신까지 그 속에서 돈만을 추구한다면 영원히 자본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 그 세계의 구성 요소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영자는 기계의 부품이 되지 않기 위해, 자본주의의 부품이 되지 않기 위해 대가 없는 헌신을 베풀고, 자신의 헌신과 돌봄에 대해 절대 대가를 주지 말 것을 엄명한다. 이것은 자신의 헌신을 다른 등가교환의 대상- 흔히 신분이 낮은 여성이 ‘뒷바라지’라는 선물을 제시하고 높은 지위의 남성을 통해 계층 전이를 실현하는 ‘연애나 결혼’ 따위로 값하지 말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언젠가 현이 세상살이의 고단함으로 거칠어진 성격을 누그러뜨리고 따뜻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봐 줄지도 모른다는 영자의 소녀적인 낭만은 엿볼 수 있을지언정 ‘어려울 때 뒷바라지한 것’을 “언제든지 갚아주겠거니”하고 계산하거나 더 이상 자신의 헌신이 필요 없을 때 현에게 버림받게 되는 결말에 대한 두려움은 찾을 수 없다.⁴⁶⁾ 이것은 교환 논리의 경제적 세계 속에서 교환의 대상이 되지 않겠다는 결의라고도 읽을 수 있다. 남녀관계에서 흔히 성공한 교환의 수순으로 여겨지는 ‘가난한 여성의 극진한 헌신- 결혼으로의 보답- 신분상승’

46) 현이 성혜를 데려와 영자에게 목도시킨 후에 영자가 현으로부터 사라진 이유가 “성혜 때문이 아니라 현이 그녀가 아는 현이 아니어서였다.”라고 서술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다른 여자가 생겨서 자신의 자리를 비켜주어야 한다거나 연애라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상실감 때문이 아니라, 영자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타락한 현을 곁에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장면은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판사님의 낯이 들어앉은 것처럼 현의 표정은 생소했”(2권 264쪽)다고 묘사된다.

의 매커니즘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빠 가만히만 있으면 돼”라는 말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대가를 금지한 증여 앞에서 현은 오히려 속수무책이 되며 두려움까지 느낀다.

모스는 경제적 교환이 서로 간에 양도할 수 있는 대상의 양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면, 증여는 서로 간의 질적 관계를 설정하고 그들 사이에서 양도할 수 없는 대상이 순환한다고 설명한다.⁴⁷⁾ 따라서 증여가 된 대상은 쌍방적이며 양자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유대관계를 형성토록 하기 때문에 받는 데에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다.⁴⁸⁾ 모스의 증여 개념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킨 신이치는 ‘순수증여’의 개념을 다시 설정하여 이 세계에는 교환의 원리를 적용시킬 수 없는 증여의 영역이 있으며 증여는 ‘등가교환’의 답례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여에서는 인격성의 힘이 활동하고 있고⁴⁹⁾ 따라서 교환이 계산에 의한 확정성을 준다면, 반면 증여는 그 인격성 때문에 불확정적이므로⁵⁰⁾ 증여의 행위에는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절대성이 내포⁵¹⁾되어 있다고 말한다.

결국 현은 영자의 조건 없는 헌신을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끝내 이해하지 못하지만 대신 그때부터 영자를 무서워하게 된다. 그가 영자를 빨리 때어내려고 한 데에는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영자의 그 절대적인 무서움, 불가해한 존재감도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현의 세계에서 영자의 헌신은 ‘빛’이었으며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 이를테면 영자와의 연애라든가 결혼과 같은 보상을 주어야만 하는 부채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로지 현이 자신의 셈속에서만 판단한 것이므로, 영자의 끝없이 ‘순수한 증여’는 현에게 영원히 불가해한 영역으로 남고 그 불가해함 때문에 영자는 현이 영원히 넘어설 수 없는 어떤 특수한 존재로 남는다.

47) 류정아, 『마르셀 모스, 증여론』,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6, 15쪽.

48) 마르셀 모스, 류정아 역, 『증여론』, 지만지, 2011, 90쪽.

49)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역,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 동아시아, 2004, 53쪽.

50) 위의 책, 37쪽.

51) 위의 책, 80쪽.

영자는 그가 얼떨결에 가난으로부터 걸머진 빛이었다. 그러나 쉽게 갚을 수 있는 빛이 아니었다. 영자는 처음부터 그에게 가난의 한 구석에 지나지 않았지만 탄 구색하곤 달라서 인간이었다. 살아서 숨쉬는 인간이었다. 그는 또 영자의 피가 얼마나 진하고 뜨겁다는 걸 알고 있었다.⁵²⁾

그런 하염없는 시선 속에는 그가 함부로 다룬 바보 같은 계집애의 것이라곤 믿어지지 않는 범할 수 없는 게 있어서 그는 슬그머니 바보같은 계집애란 소릴 한 번도 안 빠뜨린 자신의 고약한 말버릇을 누우쳤다.⁵³⁾

“믿어지지 않는 범할 수 없는 게 있는” 영자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빛”이 됨으로써 이 세계와 대결하는 존재가 된다. 교환논리의 규칙에 빠르게 순응하고 그것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을 성장의 필수 조건으로 삼는 현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규칙을 위반하는 인물이 바로 영자다. 그럼으로써 영자는 흔히 남성의 성장문법에 등장해서 소용되는 희생양 여성이 아니라 독자적인 의미를 확보한다. 영자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살펴보자. 영자가 전치태반으로 위독해지자 남상이는 현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의 병원으로 달려가고 두 남성은 죽어가는 영자를 사이에 두고 다시 해후한다. 직전까지 현은 “환자라는 것처럼 평등한 신분은 없는데 VIP는 무슨 얼어 죽을 VIP야”(2권 257쪽)라는 산부인과 선배의 일갈에도 “VIP 가족”과 “평민의 아내”(2권 258쪽)의 분만을 어떻게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느냐며 대꾸하던 차였다. 그러나 영자가 혼수상태에서 잠깐 깨어나 현에게 한 말이 지난 과거에 대한 어떠한 원망도 아니며 오로지 “오빠, 보고 싶었어”(2권 263쪽)였다는 것에 현은 비로소 고통을 느낀다. 결국 영자로 인해 두 남성은 극적인 화해를 하지만, 결국 영자는 죽는다. 영

52) 박완서, 앞의 책 2권, 10쪽.

53) 박완서, 앞의 책 1권, 204쪽.

자는 죽으면서 두 남성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들이 이루려고 애쓴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목도하게 하는 존재로서 자리한다.

그는 의사인 동시에 보호자였기 때문이다. 그건 견디기 어려운 고문이었다. 그는 그 고문을 견디다 못해 그가 오랫동안 어떤 경우에도 잘 참아내던 것을 참지 못하고 말았다. 그가 주리 참듯 참아 온 건 다름아닌 자신의 인간성이었다. 마침내 그는 울고 있는 남상이를 얼싸안고 같이 울 수가 있었다.⁵⁴⁾

영자의 시체는 이들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가시적 증거가 되며, 동시에 이들이 시달려 온 ‘예기 죄의식’이 실제로 눈앞에 가시화된 가장 처참한 물적 증거가 되기도 한다. 영자는 이 두 남성이 실패했음을 깨닫게 해 줄뿐더러, 다시 한번 현과 남상이가 한 자리에 모여 영자의 죽음을 계기로 서로 무엇이 변했으며 어떠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 영자가 묻혀있는 공원묘지에서 현과 죽은 영자, 남상이가 다시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장면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해후한 현과 남상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각자의 계획을 말한다. 현은 약혼한 부잣집 딸 숙경과 파혼을 한 상태였으며 남상이는 그동안 영업과장을 하며 이자 놀이로 모은 모든 재산을 잃고 사장이 일부러 파산한 뒤 버리고 간 공장을 공원들과 어떻게든 재건해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현과 남상이가 서로의 가게 때문에 절연하고 수 년 동안 서로를 관객으로 삼으며 보이지 않는 고투를 계속해 온 결말 치고는 매우 허망한 것이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이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처해 있던, 필사적으로 벗어나고자 했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있기 때문이다.

54) 박완서, 앞의 책 2권, 267쪽.

그토록 부도덕한 가게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음에도 현은 결국 다시 친일파 조상을 둔 기업가의 아들로 돌아와 있고, 가난에서 탈출하고자 악전고투했음에도 남상이는 가까스로 상승한 중산층의 자리에서 다시 모든 것을 잃고 밑바닥 상태에 처해있다. 두 남성이 절연하기 이전의 상태와 동일한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들은 결국 이 세계 속에서 자신이 꿈꾸었던 대로 성장하지 못했으며 원점으로 회귀한 것에 불과하다. 이들 모험의 결과는 현의 가족로망스가 가짜였던 것에서부터 예견된 것처럼 허망하게 끝이 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러한 허망한 모험을 굳이 경험하게 하고, 수년의 세월을 거쳤음에도 이들이 애초에 출발했던 제 자리로 돌아와 변한 것 없는 현재를 목도하게 하는 작가적 의도는 무엇일까.

각자 자신들이 꿈꾸었던 성장에 실패한 그들에게는 내적인 변화만이 있을 뿐이다. 현은 자신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과분한 대상인 부잣집 딸 숙경과의 미래가 보장된 결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파토 냈으며⁵⁵⁾, 남상이는 이전과 다르게 자신이 괴롭히던 공원들, 특히 노조 결성을 꿈꾼다는 이유로 자신이 해고한 노동자 덕환이와 함께,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공장 재건을 꿈꾼다.⁵⁶⁾ 십대 후반에서 삼십대로 나이만 늘어났을 뿐 그들은 가장 절박하게 벗어나고자 했던 바로 그 지점, 원점으로 회귀했지만 달라진 것은 분명히 있었다. 이들은 이 시대의 ‘지수

55) 그는 자기가 숙경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음이 기쁘고 대견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건 장차 사랑도 느낄 수 있으리란 가능성을 의미했다. 그는 자신이 소생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숙경이 문제는 시작일 뿐 그의 앞엔 미루어 온 수많은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었다. 더 이상 그걸 미루지는 않을 터였지만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서둘지도 않을 터였다. 중요한 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나를 깨닫고 있는 거였다. 위의 책, 269쪽.

56) “별로 될성부른 일도 아냐. 이 친구가 글썽 우리 공장을 재건시켜 보겠다는 거야. 사장이 알맹이는 미리 다 빼돌리고 빚만 잔뜩 저놓고 미국으로 도망가버린 공장을 제가 무슨 수로 재건을 한다는 건지. 무진 애쓰더니만 겨우겨우 기계는 돌려서 공원들이 아주 실직하는 것만은 면했지만 월급날 다만 몇 푼씩이라고 나누어주게 돼야 재건이고 뭐고 큰 소리 칠 수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쉽겠어?” “형님 글썽 된다니까요. 형님도 자신을 가지세요” 위의 책, 271쪽.

성가’라는 이데올로기 아래 무엇이 은폐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정한 ‘자수성가’를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는 한 애초에 꿈꾸었던 ‘진짜 자수성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서로의 모습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또한 더 이상 타자에게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자기 정당성을 정체화하지 않을 것임을 결심하고 타인을 착취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생산의 방식은 무엇인지 모색해보기 시작한다. 여기에는 정신적 정당성과 경제적 성공으로 상징되는 ‘자수성가’라는 당시 한국 사회의 이상적 남성성 이면에 놓인 자본의 논리와 그에 대한 추종이 불러일으키는 기만적이고 파괴적인 속성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동반된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자수성가한 중산층 남성’이라는 외적인 성상에 완전히 실패했기에, 제자리로 돌아왔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5. 결론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 한국 사회는 국가주도의 집약적 경제발전이 이루어짐으로써 자본주의의 전면화가 이전과 달리 극도로 팽창되기 시작했다. 가속화되는 자본의 논리 속에서 생존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이 세계에서 가장 잘 적응하여 성공한 ‘중산층’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명확한 역사적 실체는 아니었으며 60년대부터 사회 안정 세력을 위해서 국가 주도 하에 제시된 일종의 ‘이상적’ 국민의 미래 형태였다. 70년대로 접어들면서는 자가 주택과 마이카를 소유한, 안정된 직장을 통해 처자식을 부양하는 가부장의 이미지가 중산층 남성성의 이상적 모델로 나타났다. 이때 자가 주택과 마이카, 안정된 직장과 일정 이상의 월 급여라는 세목이 중산층의 물적 토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중산층 남성의 가치를 구성하는 정서적 요소는 과연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발생한다. 여기에는 70년대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이상, 이제부터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는 환상을 경유하여 만들어진 ‘자수성가’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적 자아이상은 주로 당시 사회에서 공격 영역을 담당했던 중산층 남성의 윤리적 정당성이자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측면에서 『오만과 몽상』에 나타난 두 남성의 모험을 중산층 남성이 되기 위한 성장서사로 살펴보았다.

현과 남상이는 친일파와 독립투사라는 서로의 가계 때문에 절연한 뒤, 현은 자신이 부도덕한 집안에 빛을 지지 않고 자립할 수 있음을, 남상이는 독립투사의 후손이라는 허울 뿐인 명예와 가난에서 벗어나 성공할 수 있음을 서로에게 증명하고자 한다. 이 두 남성에게 ‘성공’이란, 현에게는 안정적인 전문직인 의사가 되는 것이며 남상이에겐은 공장의 관리직이 되어 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부장이 되는 것이다. 모두 가시적으로는 자수성가하여 중산층적 삶을 구가하는 것이며, 세목을 따진다면 현에게는 ‘자수성가, 남상이에겐 자수성가’에 방점이 찍히게 된다. 그러나 이전 가계(부계)의 역사를 부정하고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고자 이들의 가족로망스는 사실 현이 행랑아범의 자식이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가짜였음이 판명된다. 두 남성은 중산층 남성으로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세계의 교환 논리를 빨리 습득하는 한편 교환의 최종적 목적이 결국은 적게 주고 많이 남기는 것, 즉 착취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언젠가 죄를 지을 지도 모른다는 ‘예기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이들은 교환논리의 작동 방식에 동화된다. 남상이는 영업과장으로 현은 의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현이 영자의 헌신을 착취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의 성장문법은 ‘최대한 적게 주고 최대한 많이 남기는’ 자본주의 절대율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성장서사에 교환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는 ‘증여하는 여성’ 영자가 개입하고 그럼으로써 그녀는 남성의 성장문법에 소용되는 희생양 여성이 아닌, 독자적인 의미를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성장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고 마는데, 현은 친일파 집안으로 복귀하고 남상이는 경제적 부도로 ‘바닥 가난’ 상태에 처하게 된다.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두 남성은 영자의 죽음을 계기로 해

후하고 자신들의 성장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서로 목도한다. 그러나 이 소설은 두 남성의 외적인 성장을 결락시키고 원점으로 회귀토록 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두 남성에게, 그리고 독자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작가적 의도를 드러낸다. 이들의 허망한 모험은 ‘공정한 자수성가’란 70년대가 낳은 이데올로기적 산물일 수 있으며, 생존과 성공이란 그 이데올로기의 이면에 놓인 착취와 기만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묵인해야 가능했다는 사실, 따라서 자수성가가 이데올로기를 쉽게 중산층의 윤리적 자산으로 체화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목도하게끔 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남상이는 무너진 공장을 재건하려 애쓰고, 현은 부잣집 약혼녀와 파혼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이제 중산층 남성의 새로운 자아 이상이 될 수 있는 어떤 윤리적 가치를 추구할 것임을 암시하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형상을 제시하는 것을 보류함으로써 끝까지 경고와 성찰을 요구한다. 이후 중산층의 윤리성의 세목을 밝히는 작업은 차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박완서, 『오만과 몽상』 1,2, 세계사, 2012.

『경향신문』

2. 단행본

류정아, 『마르셀 모스, 증여론』,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6, 15쪽.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역,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 동아아시아, 2004, 37, 53, 80쪽.

모스, 마르셀, 류정아 역, 『증여론』, 지만지, 2011, 90쪽.

코넬, R.W, 안상욱, 현민 역, 『남성성/들』, 이매진, 2013, 124, 276쪽.

프로이트, 지그문트, 김정일 역,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2004, 200-201쪽.

헌트, 린, 조한옥 역, 『프랑스 혁명의 가족로망스』, 새물결 출판사, 2000, 10-11쪽.

Tönnies, Ferdinand, *Community and Civil Society*, Cambridge, 2001, 64-65쪽.

3. 논문

김민식, 「의료보험 행정의 역사적 변천 과정 소고」, 『한국행정사학지』 11권, 한국행정사학회, 2002. 261-291쪽.

김영택, 신현순, 「박완서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고찰 : 『육망의 응달』·『오만과 몽상』에 나타난 '콤플렉스'·'불안'을 중심으로」, 『語文研究』 63권, 어문연구학회, 2010, 295-317쪽.

김은하, 「1970년대 소설과 저항 주체의 남성성-황석영의 7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제7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07, 249-280쪽.

방민호, 「불결함에 맞서는 희생제의의 전통성」, 박완서, 『오만과 몽상』, 세계사, 2006, 449-459쪽.

박진, 「아버지-자본의 타락한 법에 맞서 청년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박완서, 『오만과 몽상』, 세계사, 2012, 273-287쪽.

오자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정체성 형상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1-284쪽.

조미희,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가난의 기원과 도시빈민의 양상」, 『한국언어문화』 62권, 한국언어문화학회, 2017, 191-218쪽.

한경희,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자본주의와 교섭하기」, 『페미니즘 연구』 16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16, 267-315쪽.

황병주, 「박정희와 근대적 출세 욕망」, 『역사비평』 89호, 역사비평사, 2009, 257-283쪽.

_____, 「유신체제의 대중인식과 동원담론」, 『상허학보』 32집, 상허학회, 2011, 143-186쪽.

Abstract

The Way of Becoming a Korean Middle Class Man and its Ethical Problems

: A Study of Park Wan-seo's "Pride and Fancy"

Oh, Ja-eun

This article reads Park Wan-seo's novel "Pride and Fancy" as a story of becoming a middle class man in the South Korean society of 1970s and 1980s and questions its ethical implications.

The middle class man as a goal of life or collective ego ideal doesn't simply mean here a certain social and economic status, but must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state-led capitalist development of South Korea at that time. It's a social construct which was produced through state discourse in the intention to generate and expand stabilizing social forces before the class in modern sense even really existed, and in its ideological core lies the myth of the self-made man.

Park Wan-seo tells a story of two young men who try to be the hero of this myth and are confronted with two different tasks: Hyun must leave his rich family with pro-japanese past to become a doctor on his own, while Namsangi struggles to lift himself from the poverty into which his family has fallen through participation at the independence movement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author asks with this almost fairy-tale-like setting how it would be possible to harmonize moral legitimacy with middle-class wealth in the time of rapid capitalist industrial development. It turns out to

be not so easy as the myth of the self-made man makes it seem, because in the capitalist society of exchange value there is no such thing like self-made success which doesn't rely on sacrifices of others. It's the lesson that the two protagonists learn through their failures and their experiences with the factory girl Young-ja who puts the exchange principle of the society radically into question.

Key words : Park Wan-seo, Pride and Fancy, Middle Class Man, Middle Class, Self-Made Man, Gift, Family Romance

■ 본 논문은 2018년 11월 22일에 접수되어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8년 12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